

前·現職 警友와 사회 각계 人士들의 新年 메시지

만들어 나갑시다

신년호 특 집

결속하여 존경받는 선배가 되자

- 이 주 자 (서울여경회장)



해가 바뀔 때마다 항상 되풀이되는 말이지만, 다사다난 했던 갑신년 한해가 가고

대망의 을유신년 새아침을 맞이 하였습니다.

지난해 해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오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얼마전까지 시청 앞 광장, 여의도에 나가 급변하는 세대를 걱정하며 현장을 지켜던 일이며,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원환 회장을 떠나 보낸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경 경우회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제40회 전국여성대회에서 현 박종순회장께서 여성 최고 영예인 '용신 봉사상'을 수상 받았고, 김인옥 경무관이 2004년 경무관 여성1호 축하상을 받았습니다.

여경회가 한국여성단체 협의회에 가입한 후 여경재향 경우회를 널리 알리는 최대의 잔치였기에 지난해가 아쉽고 아름다웠고 영광스러웠습니다.

대한민국 여경재향 경우회원 여러분!

17대 구홍일 신임 회장님 취임후 지난 11월 1일부터 여경회란 명칭도 앞자리에 붙여 새이름표를 바꾸어 달았습니다. 우리가 현직에 있었던 시절은 진정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우리 선배님은 건국, 구국(참전)의 대열에서 국가를 지켰고, 60년대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웠던 때에는 거리 안니로, 누나로 봉사 활동에 앞장서 각자 책임과 임무를 다한 우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 속 깊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시대의 지킴이가 됩시다. 우리 여경회 조직도 탄탄히 발전시켜야 합니다.

경우회의 첫째 목적인 친목과 우의를 다지고 지난날 우리 선배가 터득하였던 좋은 경험과 교훈을 남기며, 후배를 사랑하며, 진정 존경 받는 선배가 됩시다. 그러기 위해 여경회가 결속하고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새벽을 알리고 잠에서 깨우는 을유년 새해를 맞아 조용히 희망을 갖고 출발하는 여경의 해가 되기를 소망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경찰과 警友가 하나되는 해 만들자

- 김 성 훈 (서울 관악서장)



이제 을유(乙酉)라는 새해를 맞이 하였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닭'은 아침이 밝았음을 제일 먼저 알려주는 상징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지난 역경을 딛고 힘찬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자 희망과 기대가 어울어진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이를 위해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우리 경찰은 우리 국가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는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임무적(任務的) 관점을 초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평온한 사회를 만드는 국가기관」이라는 지위적(地位的)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국민이 경찰에게 무엇을, 얼마만큼 바라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민의 만족을 넘어 감동할 정도까지 임무에 충실하는 「주민 눈높이 치안」을 구현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찰은 공급자(供給者)적 관점이 아닌 수요자(需要者)적 관점에서 치안을 관리하는 사고와 자세의 전환이 더욱 필요 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 국가사회의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힘을 한 방향으로 모을 수 있는 단합(團合)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내부의 단합은 상사와 선배에 대한 존경과 공대, 부하와 후배에 대한 애정과 배려가 충만한 결과 즉, 「동료의식」이 싹들 때 만이 이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한번 경찰은 영원한 경찰' 이기에 현직에 있는 경찰만이 아니라 현직을 떠난 경우(警友)선배와의 단합 역시 도외시되어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현직 경찰이 경우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만 아니라, 경찰과 국민간의 가교로서의 역할을 경우선배들이 충분히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경찰과 경우회가 경찰인(警察人)으로서 '하나'가 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옛 속담속에서 보듯, 시작을 게을리하면 그 만큼 얻는 것

이 적어질 수 밖에 없음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할 시점입니다.

당장 새해에는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문제 등 경찰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큰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용기를 모아야만 잘 풀어낼 수 있습니다. 다같이 손을 손을 잡고, 발과 발을 맞추어 나아갑시다!

現職 경찰에 대한 아낌없는 후원을...

- 우 동 하 (경북 구미署)



지난 갑신년은 우리의 가슴을 저미는 아픈 사건들이 유난히 많았던 것 같다.

이화만 검거과정에서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동료를 물이나 앓았고, 회대의 연쇄살인마 유영철의 엽기 행각과 화성 여대생 실종 사건 등으로 우울한 한 해를 보내야만 했다.

또한 이러한 경찰 사건 이외에도 장기화된 불황으로 순찰 중에 만나는 노숙자의 수도 만만찮아 국민들의 해 넉기는 마음 무거운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찰은 국민과 함께 하는 치안환경 조성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국민들이 경찰에 대해 협조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현직 경찰의 후원자이신 경우회원 여러분들께서 중간 매개체 역할을 잘 해주셨다.

경우회원 여러분들께서 경찰의 미흡한 부분을 잘 보듬어 주셔서 무엇보다도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경찰의 날,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2,0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하는 대형 콘서트를 가져 경찰의 활동상과 애환을 노래해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는데, 금년에는 서울에서 한 차례 더 열어 국민에게 보다 친근한 경찰상을 심고 싶다.

구홍일 신임 경우회장님의 취임을 계기로 경우회가 새로운 도약을 맞을 것이라 믿는다. 새 회장님은 돋보이는 추진력과 함께 세밀하고 자상한 성품을 지니신 분이리라 마음이 든든하다. 작은 희망이 있다면 현직 후배들이 쉽게 손대지 못하거나 목소리 내기 곤란한 분야에 경우회 선배들께서 일정 역할을 하시는 것은 어떨까? 또한 주변을 살펴보면 현직에 계실 때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다 불의의 사고로 상처를 입은 경우회원들이 계신 데, 온정의 손길을 보낼 필요가 있다.

이제 희망찬 을유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우리 경찰 가족에게 기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며, 특히 경우회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 불우하고 가난한 이웃에게 훈훈하고 따뜻한 손길을 모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어느 경찰관의 모습을 보고

- 손 만 오 (텍시기사)

인간에게 주어진 필수 없는 자연의 섭리는 사람과 사람의 파스한 사람이 아닐까. 그 사람의 의미를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 아름다운 사랑을 주지 못하는 또 느끼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 내가 행들을 잡은 것이 벌써 35년...

이 오랜 세월 속에 그 많은 군상들 중에 나의 가슴에 애정과 애증을 남긴 사람

들이 경찰관들이었다. 초보시절엔 그 사람들의 제복만, 아니 비슷한 옷을 입은 사람만 봐도 죄인처럼 공연히 가슴이 두근두근 했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싶다. 그들도 나와 같은 하늘아래,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두려워 하고 경원시 했는지...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데..... 결국 그 내음(애정) 속에서 서로의 믿음과 신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애정을 심어줄 수도, 받지도 못하는 결여된 상태에서 서로의 불신과 미움 때문에 한 축이 흔들리고 구조 자체가 무너지면 어떻게나를 염려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참된 모습을 담아볼 수는 없을까.

왜 나의 머리 속에는 지워버릴 수 없을 만큼 경찰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게 쌓여 있었을까? 왜 그들의 아름답고 따뜻한 모습을 찾아보지 못 했을 까를 생각하면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안쓰럽다.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또 한해가 바뀌었음을 새삼스럽게 한 오늘 이제부터는 그들과 함께 공유하는 사회속에서 서로 따뜻한 미소를 주고 받으며 불신과 멀어진 과리의 늪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젠 공연히 그들을 미워할 수 없다. 그들에게 애정과 격려를 보내야겠다.

그들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들의 아들딸 형제들이다. 그리고 우리사회를 지탱하고 지켜주는 우리의 파수꾼이 아닌가.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들을 사랑할 거다.

乙酉年 새해 경찰에 거는 기대

- 김 연 수 (동국대 경찰행정학 석사과정)



2005년은 닭의 해, 을유년(乙酉年)이다. 닭은 새벽을 알리는 동물이다.

닭의 해를 맞이하여 경찰은 또 하나의 시작점에 서있다고 하겠다.

지난 20세기가 한국경찰이 자리를 잡아 가는 시기였다면, 이번 21세기는 한국경찰이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본격적으로 변화와 혁신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는 시기이고, 특히 2005년은 그러한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지난 수년간 경찰혁신의 중심과제였던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가 2005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10월 시범실시를 거쳐, 2006년 7월 전면 실시를 예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 검찰과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협의를 구성하여 경찰의 수사권독립을 한층 가시화시키고 있다.

한편 지난 12월 16일은 국회에서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가 열려서 그동안 주취자에 관한 법률의 미비로 적절한 대응이 힘들었던 경찰에게 시의적절한 서비스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경찰의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려를 표명하는 시민들이 많다.

즉 '주취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만 하더라도 이 법을 통해 국민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고 아직도 경찰이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기보다 국가 공권력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지속적인 경찰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통해 국민과 더욱 친숙해져야 하고 정치적 중립과 비리경찰이 감소되어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또 경찰의 부정적 이미지를 쇠신하기 위해서 경찰인사제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비간부의 질적 강화와 간부의 종적유입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경찰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여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경찰업무의 아웃소싱을 통해 부분적 전문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알 린 다 -

인터넷을 통하여 중요소식을 알리기 위한 동시전송 프로그램이 구축되었습니다.

경우회 홈페이지 E-mail 등록회원은 "정보수정"을 통하여 단체로 보내는 소식과 정보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